

유행에만 급급한 표지장정

상품의 겉모양새는 그 상품의 품질에 앞서 구매자를 만나게 마련이다. 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독자의 까다로운 눈에 들기 위해서는 내용의 충실함 못지않게 포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편집부의 '주물럭거림'에서 벗어나 책의 장정이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진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서점에 진열된 책들의 외형은, 고급지질의 표지에 현란할 정도의 화려함이 곁들여진 것들이 부지기수다. 짙은 바탕색에 반듯반듯한 활자가 새겨진 천편일률적인 예전의 그것과는 사뭇 달라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뜯어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우리 책들의 표지장정.

알록달록 몸단장을 한 책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면면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 느낌이 먼저 든다. 조금 낫다 싶은 것은 여기저기서 흉내내기가 일쑤여서, 그 책이 그 책 같지만 하다. 몇몇 이름난 전문 북디자인이나 기획실의 솜씨가 엿보이는 책들 또한, 쪽주하는 몰랑 타인지 새롭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표지장정은 단순히 유행에만 급급한 출판계의 맹점의 노출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정작 고려돼야 할 책의 내용과는 무관하거나, 전체와 조화되지 못한 일부분이 된 장정은 독자들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힘들어졌다. 아무리 표지 그 자체로서는 뛰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몸과 어울리

지 않는 얼굴이 된다면, 분명히 그것은 실패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굳이 거창하게 북디자인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표지만을 따로 떼서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과 상관없이 제작하는 일을 거듭한다면 우리의 책들은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그림과 영상, 그리고 색채에 민감하고 익숙한 세대들이 차츰 우리 독서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출판계는 직시하고, 겉모양새에만 주목하는 단일한 제작태도에서 일찌감치 벗어나야 한다.

뜻있는 출판인들과 북디자인들이 모여 보아나온 제작풍토마련을 위해 앞장설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그런 모임의 출발을 기다리는 것은, 판형이나 용지선택, 활자의 급수 등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지 않은 책들은 이제 더이상 독자들의 눈길을 잡아둘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 최태원 기자

재미있는 책이야기

이번호에는 美리더스다이제스트 판 「잡학사전」(동아출판사 刊) 가운데 출판과 관련된 흥미로운 항목을 발췌 소개한다.

▲사전 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끈기가 없거나 수명이 짧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최초의 프랑스어대사전인 「아카데미 프랑세스」는 완성하는 데 56년이나 걸렸으며, 「옥스포드영어사전」은 71년이 걸렸다. 「기초독일어사전」은 그림형제가 작업을 시작한 지 106년 뒤인 1960년에야 겨우 출판되었다. 그림형제는 사전을 만드는 동안 동화를 수집하면서 지루함을 달랬다. 1863년에 작업이 시작된 「표준이탈리아사전」은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남아프리카의 공용네덜란드어(Afrikaans)로부터 줄루어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는 언어의 경우에는 거의 모두 사전이 출판되었으며, 바빌로니아어나 이집트어(상형문자에 한정)처럼 죽어버린 언어의 경우에도 사전이 나온 경우가 더러 있다.

최초의 2개국어사전(영불사전)은 프랑스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 사전은 인쇄술을 영국에 소개한 사람으로 더 잘 알려진 윌리엄 캐스턴에 의해 1480년에 편찬되었다.

사전에는 철자, 발음 및 단어의 뜻

등이 나타나 있는 것이 보통이나 옥스포드사전은 1150년 이후에 알려진 모든 영어단어의 파생어를 추적, 예문과 함께 그 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작업이 얼마나 방대한 것인가는 예컨대 good라는 단어가 지난 800년 동안에 약 20가지의 각기 다른 철자를 가졌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사전의 건축가 거의 혼자 힘으로 「옥스포드영어사전」을 편찬한 사람은 학교라곤 8년밖에 다니지 않은 사람이었다.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마을 재단사의 아들 제임스 오거스터스 헨리 머리는 일찍부터 어휘에 대한 재질을 보여주었다. 어학에 대한 그의 관심과 학문적 논문들을 높이 평가한 영국언어학회에서는 그에게 당시를 기준해서 22년전인 1857년에 착수되었지만 포기상태에 있던 새로운 영어사전 편찬작업을 맡아달라고 제의했다. (중략)

1주일에 80시간씩 일을 계속하고, 단순한 작업은 11명의 그의 자녀들에게 맡겼는데도(그는 자녀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시간당 2~3페니를 지불했다), 머리가 제1권을 완성하는 데에 5년이 걸렸다. 모두 352페이지에 달하는 1권을 완성했을 때까지도 사전은 「A」에서 「Ant」까지밖에 완성되지 않았다. 다음권에서는 「do」라는 단어 하나를 완성하는데 6개월이 소요되었다. 1901년에는

F~G권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그때가 되자 그 사전 출판계획의 소문이 전세게로 퍼져, 싱가포르의 한 학교에서는 「G로 시작되는 단어까지만」 영어를 가르치자는 제의가 나오기까지 했다.

1951년 머리가 78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 그는 이미 나이트의 작위와 수많은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작업은 「T」로 시작되는 단어까지 도달되어 있었다. 41만 4825단어가 수록된, 완성된 사전은 1928년에 마무리되었다. 그 사전을 완성하는 데는 기간은 계획보다 39년이, 예산은 29만 1000파운드가 더 소요되었다.

▲도서관 도서관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약 4000년 전에 학자들과 관리들을 위해 설립된 도서관은 딱딱하게 구운 흙으로 만든 명판들과 파피루스두루마리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이집트의 한 도서관을 발굴한 사람들은 벽에 새겨진 '카드목록' - 소장한 모든 두루마리의 리스트 - 을 발견했다. 고대 이집트의 또다른 도서관 문 위에는 "영혼을 위한 약"이라고 새겨져 있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고대의 많은 도서관들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아침햇살을 더 많이 받아들여 밤에 생긴 습기를 말리려고 많은 도서관들은 동향으로

되어 있었다. 습기는 파피루스와 양피지를 손상했기 때문이다. 두루마리들은 주제에 따라 선반에 보관되거나 원통형상자에 수직으로 넣어 보관했다. 소장품의 내용을 알리는 꼬리표는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었다.

세계 최대의 도서관은 스페인의 정복이 있기 오래전에 마야의 학자들에 의해 멕시코의 마이에 세워졌던 것 같다. 거기에 있던, 평평하게 만든 식물의 섬유질로 된 두루마리에 그려진 상형문자 속에 남북아메리카의 지식이 모두 집중되어 있었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책의 수로 도서관의 크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소장품의 가치와 희귀성 역시 중요하다. 미국에 있는 4개의 도서관, 즉 국회도서관, 뉴욕공공도서관, 하버드대학과 예일대학의 도서관을 포함해서 적어도 세계의 11개 도서관은 400만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나머지 7개는 대영박물관과 파리의 국립도서관(각각 600만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고 있음), 피렌체의 국립중앙도서관, 중국 북경의 국립도서관, 그리고 소련에 있는 세 도서관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현대적 도서관들은 필름, 테이프, 펀치카드, 카세트, 디스크, 마이크로필름, 그리고 홀로그램까지도 수집하고 있다.

출판저널

통권 제90호 / 1991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惠玉 林南貞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鄭貞煥

임무부장 — 尹東鎬
입부·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允淳 金旻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佑泰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暉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愼鍾夏	安泰永
安鍾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環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勳
李相日	李勝羽	李元馥	李重漢
李姬載	林煥燾	張必和	張會翼
鄭亨圭	鄭爽鍾	鄭雲映	鄭晉錫
鄭鎮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慶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 회원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편대체 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